2000년도 SCM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T-50 고등훈련기 제3국 수출 위한 미국의 지원 요청

금년도 한·미 안보협의회(SCM)의 3개 분과위원회(안보협력위원회, 방산·기술협력위원회, 군수협력위원회) 회의가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한·미 양국간 방산 및 군수 협력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이번 분과위원회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국방부 이원형 획득정책관 및 이광길 군수관리관이, 미국측에서는 Mr. A. Volkman 국방부 국제협력 국장 및 Mr. E. Ross 국방안보협력본부 아시아지역 담당 국장이 각각 대표로 참석하였다.

이번 분과위원회 주요 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안보협력위원회(SCC)에서는, 미국 정부의 신속한 제3국 수출 동의 및 수출승인 처리와 대외 군사판매제도(FMS) 개선 등 양국간 현안 문제를 논의하였다.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에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미국 록히드 마틴이 공동 개발 중에 있는 초음속 고등 훈련기(T-50)의 원활한 제3국 수출 추진을 위한 미국의 지원을 요청하고, 양국 국방분야의 상호 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과학기술자 교환 협정에 서명하였다.

군수협력위원회(LCC)에서는, 남북송유관 중심의 주한미군 유류 수송체제 구축, 한·미 상호군수지원 협정 수정 체결, 전자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능력 확보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국방부는 금번 회의를 통하여 양국간 방산·군수·기술협력 분야 현안에 대한 상호 솔직한 의견 교환 및 해결방안 모색과 함께, 상호보완적 협력 환경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격헬기(AH-X)사업 추진 현황

'04년 이후 육군의 공중타격 핵심전력으로 운용

국방부는 공격헬기(AH-X) 사업에 참여를 신청한 업체(미국 Boeing, Sikorsky, Bell/러시아 Kamov, Mil Moscow/남아공 Denel/프·독 Eurocopter)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하고, 각 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추진팀이 제안서를 종합평가하여 9월 말경에 대상장비를 선정하고 협상 및 시험평가를 추진하게 된다.

후보기종은 신형 아파치헬기인 美 보잉사의 '롱보우'(AH-64D), 시코르스키사의 AUH-60, 벨사의 AH-1Z, 러시아 카모프사의 KA-50, 밀 모스크바사의 Mi28 등이다.

본 사업은 입체고속기동전시 주·야간 악천후 상황하에서 육군의 공중 타격 핵심전력으로 운용될 공격헬기를 국외도입하는 사업으로, 2조여억원을 투자하여 '04년 이후에 총 OO대를 전력화 할 예정이다.

획득하고자 하는 헬기는 쌍발엔진으로 130kts(240km/h) 이상의 비행속도를 가지고 대전차 유도탄, 공대공 유도탄, 기관포 등 무장 능력과 최신 항법 및 표적획득 능력, 적 방공망으로부터의 생존 능력 등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금년 1월 25일 관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격헬기(AH-X) 획득계획을 공고하여 7개 업체로부터 참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3월 14일 참여 업체 관계자를 초청하여 국방회관에서 제안요구서 배부 및 공개설명회를 실시했다.

참여업체가 제안서를 작성하는 동안 사업추진팀은 제안서에 대한 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서를 완성하였다.

공격헬기(AH-X) 대상장비 선정 평가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업체에서 제안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 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국방투자사업에 최초로 시도되는 계량화된 평가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본 사업에는 최초 7개 업체가 참여를 신청하였으나 남아공의 Denel사, 프·독의 Eurocopter사가 불참의사를 밝힌바 있어 5개 업체에서 제안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업체 제안서 접수후 비용·작전운용성능·기술이전·계약조건·절충교역·종합군수지원 등을 중점으로 절대평가를 시행하여 대상장비를 선정하고, 협상 및 국외시험평가를 병행하여 추진하며, 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사용 가능장비』를 대상으로 '01년 전반기에 최종적으로 기종을 결정할 예정이다.

▲ 美 Boeing사의 AH-64D Longbow Apache

▲ 러시아 Kamov사의 KA-50 Hokum

▲ 美 Bell사의 AH-1Z

▲ 러시아 Mil Moscow사의 Mi-28

공군, C-130대대 18년 무사고 비행기록 수립

총 4만 4천여시간으로 세계 최장기 무사고 비행 기록

공군 제15혼성비행단 제255특수작전비행대대가 수송기를 운영하는 단일비행대대로는 처음으로 세계 최장기 무사고 비행기록을 수립했다.

공군은 6월 30일 제15혼성비행단에서 이억수 참모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55특수작전비행대대의 18년 무사고 비행안전 시상식을 거행했다.

이 기록은 지난 6월 1일 21시 12분 비행대장 심재관 소령 외 1명의 조종사가 조종한 C-130H 1대가 임무를 마치고 무사히 착륙함으로써 달성됐다.

이번에 대기록을 수립한 제255특수작전비행대대는 1955년에 창설되어, 1982년 4월 1일 현재의 이름으로 편제가 변경된 이후 C-123 수송기를 운영해 오다, 지난 88~89년 현 운용기종인 C-130H를 도입해 운영해 왔다.

대대가 세운 대기록은 1982년 6월 2일부터 지난 2000년 6월 1일까지 18년동안의 기록으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총 4만 4천여시간의 비행임무를 완수한, 수송기로서는 현존 최고의 기록이다.

비행대대장 김찬수 중령은 "255대대의 18개년 무사고 비행은 오대양 육대주의 급변하는 비행 환경에서 전술공수, 공정, 탐색구조 등 다양한 작전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 가운데 달성된 기록이기에 더욱 뜻깊으며 한국항공사의 쾌거"라고 소감을 전했다.

전술공수 및 공정 이외에도 255비행대대는 공군 유일의 특수작전 비행대대로 91년 걸프전 평화유지군(PKO)파병 당시 공군 수송기 편대 비마부대의 일원으로서 참전하였고, 99년 동티모르 파병시에도 공수 임무를 맡아 대한민국 정예공군의 면모를 세계에 널리 알렸으며, 99년 실무장 폭격행사 및 보라매 공중투하 대회에서 완벽한 작전수행 능력을 과시함은 물론, 한·미 연합 합동타격 훈련(CIE : Combined Interoperability Exercise), 탐색구조 훈련, 해외 항법 훈련 등의 실전적 훈련을 한치의 오차없이 완벽하게 수행해 온 공군이 자랑하는 정예 비행대대이다.

육군 포병학교, 「포병부대 전술기」 개발 성공

실전장 상황에 가장 밀접한 워게임 모델

육군 포병학교는 지난 6월 28일 포병대대 지휘관 및 참모들의 실전전투 모의훈련이 가능한 「포병부대 훈련 워게임 모델」 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회는 포병학교 풍익훈련장에서 개발결과 보고, 견학, 훈시순으로 진행되었고, 교육사령관을 비롯한 국방부, 연합사, 육본 등 각 기관 및 각급 부대 관계자와 각 학교장 및 연구관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포병의 군신(軍神)인 고(故) 김풍익 중령의 충정을 기리기 위해 그 이름을 따서 명명된 「풍익모델」은 「창조21모델」 등 기존의 워게임 모델과 같은 모의기능을 수행하면서, 관측자가 컴퓨터에서 모의해주는 3차원 실작전지역 입체영상을 통해 적(인원, 장비)을 식별하고, 포탄사격을 요구하며, 포탄파열 영상과 전장소음, 적 표적 피해 평가 등 전장상황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면서 훈련 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워게임 모델이다.

또한 야전 포병부대에서 실제 운용중인 포병사격지휘 전산화 체계를 「풍익모델」에 연동시켜 야전 포병과 동일한 훈련체계를 워게임 모델에 적용하였다.

「풍익모델」의 특징은 관측자가 컴퓨터를 통해 실작전지역 및 적 공격양상을 보면서 화력을 운용하고 적표적피해평가를 식별하여 재타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실전장 상황에 가장 밀접한 워게임 모델이다. 이같은 특징은 가진 이 모델은 98년 6월부터 개발에 들어가 포병학교 교관을 중심으로 (주)LG-EDS 및 (주)타프(Taff) 시스템 개발요원들과 함께 공동개발에 착수한지 22개월만인 지난 4월에 완료하였다.

이 모델에 대한 타당성은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육군본부 분석 평가실의 워게임 모델 전문가에 의한 외부평가 및 운용시험을 거쳐 검증을 하였으며, 4월말 1차 시연회를

마친 후, 고등군사반 교육과정에 적용하여 훈련을 실시한 결과, 전장실상 간접체험과 지휘관 및 참모로서 임무수행에 자신감을 견지케 하는 등 교육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이 모델이 야전부대에 적용되면 실장비 기동 및 사격훈련에 소요되는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고, 훈련장 확보의 어려움이나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훈련제한을 극복할 수 있으며, 실제 훈련시의 안전사고 위험을 배제할 수 있음은 물론, 포병훈련장 사용으로 인한 민원소지를 방지하는 효과까지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포병학교에서는 전문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서 이 모델에 대한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고, 연대급에서의 제병협동 훈련이 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함으로써, 향후 많은 전투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육군포병학교는 '98년도 K-55 자주포 조종 시뮬레이터를 개발한데 이어 올해들어 "포병부대 워게임 모델"인 「풍익모델」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야전과 연계된 창의적인 교육과 전투 발전에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정예 포병 초급 간부 양성의 요람」이자, 명실공히 정보화·과학화 교육훈련의 산실로서 자리매김을 더욱 굳혀가게 되었다.